'대병'아저씨

그해 여름, 어린 소녀였던 나는 집 에서 학질이라는 모진 병을 앓고 있었 다. 시간을 맞추듯이 주기적으로 덜 덜덜 떨며 앓는 그 병은 진짜 사람의 진을 다 빼게 하였다.

아버지가 교장이다 보니 우리 집은 학교 바로 뒤에 있었다. 집 마당이자 학교 뒤마당이고 학교 마당 전체가 눈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집이였다.

그해 여름 따라 장마비는 멈출 줄 모르고 줄창 내렸는데 어느새 강뚝과 논도랑을 밀어갔으며 푸르싱싱 벼파 도 넘실거리던 논밭은 물바다로 변하 고 말았다.

어느 날인가 홍수방지에 나선 해방 군아저씨들이 방학이여서 비여있는 학교에 류숙을 정했다. 해방군아저씨 들은 학교 뒤마당에 풍천을 쳐놓고 식 당을 만들었다. 먹을 것이 귀하였던 그 시절 반찬을 볶는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아 버지는 우리를 해방군 식당 근처에 얼 씬도 못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식당 옆을 지나다가 취사원아저씨들이 하얀 밀 가루를 밀어서 기름을 조금 두르고 설 탕도 조금 넣고는 돌돌돌 말아서 또 다시 밀대로 밀고 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신기해서 한참 보다가 그 떡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다.

[산문]

다만 저렇게 구운 떡은 얼마나 맛있을 가 상상을 하면서…

그날도 한창 학질을 하고 나서 혼 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너무나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 혔다. 사실 그때는 아파도 약도 별 로 없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 때문 에 날 보살필 겨를이 전혀 없었다. 난 그저 혼자서 묵묵히 병마와 버티는 중 이였다.

눈을 떠보니 갸름한 얼굴에 하얀 피 부를 가진 군대모자를 쓴 아저씨가 나 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을 떴구나. 괜찮냐?"

웬걸 아저씨는 우리말로 묻는 것이 였다. 아, 군대아저씨들은 모두 한어 로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조선 족 군대아저씨라니!

"이 대병을 좀 먹어봐라."

"대병?"

처음 듣는 떡이름이였다. 둥그렇게 커다랗게 빚은 밀가루떡이였다. 아저 씨는 한겹한겹 벗겨서 내 입에 넣어주 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 다. 어찌나 달콤하고 고소한지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그런 맛이였다. 대병 을 먹고 기운을 차렸는지 기적같이 병 이 나았다.

학교 마당 주위에는 커다란 백양나 무들이 키 높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 주위에는 새하얀 버들버섯이 많 이 돋았다. 비가 내린 이튿날 내가 소 래를 들고 하얀 버섯을 가득 캐가지고 들어오면 엄마가 버섯을 넣고 보글보 글 장국을 끓여주었다. 엄마는 버섯이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하였고 난 우리 동네 그 누구한테도 내가 아는 그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백양나무 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였으며 반찬이 맛 없으면 나는 비 오기를 기다렸다. 그 런 비밀스러운 곳을 나는 대병을 가져 다준 아저씨께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면 한번 가서 따서 드시 라고, 새하얀 버섯이 얼마나 곱고 맛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드렸다. 며칠후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난 버섯 따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았더

"이 아까운 걸 아저씨도 참." 그렇 게 난 대병아저씨로부터 대병을 얻 어먹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었다.

니 새하얀 버들버섯이 시커멓게 물앉

아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칠후 아저씨들은 홍수방지 임무 를 마치고 학교 뒤마당의 커다란 가 마랑 다 빼가지고 가버렸다. 감칠맛 돌던 냄새랑 웃음소리랑 모든 걸 다 가지고 떠나갔다. 아무런 인사도 못 하고 그렇게 대병아저씨는 떠나갔다. 어린 소녀였던 마음에도 대병아저씨 의 모습이 늘 떠나지 않았고 한번 쯤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 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해방군아저씨들이 최고였던 그 시절 해방군아저씨를 만 나면 우리는 "해방군아저씨, 안녕하 십니까?"하고 인사를 하군 하였다.

나한테는 더군다나 '대병'사건이란 흐뭇한 추억이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 하랴. 그렇게 홍수도 물러가고 아저씨 들도 돌아가고 가을이 다가왔다. 그 날도 동생을 업고 길가에 서있는데 저 멀리서 해방군아저씨들 대렬이 척척 오고 있었다.

'저 속에 대병아저씨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내려놓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 꿈만 같았다. 신기한 생각이 들기 도 했다. 여전한 모습의 아저씨는 나 를 보고 그냥 지나면서 손을 힘있게 흔들었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 에 우두커니 서서 '대병'아저씨만 쳐 다보았다. "아저씨 반갑습니다." 인 사 한마디 못 올린 채 '대병'아저씨는 대오와 함께 점점 멀어져갔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던 군대아저씨 들, 그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대병' 아저씨. 소녀의 '대병'아저씨는 지금 도 그녀의 마음속 스타로 남아있다.

■ 현룡운(연길)

8 월의 연변에 부쳐

연변의 8월은 한여름의 끝자락 과 가을의 시작이 만나는 시기이다. 연변은 자연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 고 있어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 여준다. 특히 장백산 천지, 두만강, 해란강, 부르하통하, 모아산은 연 변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명소 들이다.

장백산 천지는 그 높고 푸른 산봉우 리들 사이에 위치한 맑고 깊은 천혜의 호수다. 8월이 되면 여름의 폭염 속 에서도 천지의 물은 여전히 차디차고 수정같이 맑다 . 신비하고 기이한 산봉 우리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동 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천지 주 변의 풀과 나무들은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의 기운이 서서 히 내려앉기 시작한다.

두만강은 연변의 자연과 력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강이다. 강언 덕을 처절씩 두드리면서 흘러가는 8월의 두만강은 여전히 여름의 생 명력을 과시한다. 짙푸른 강가의 숲

동북항일련군 제2군 군장직을

맡고 동만에서 일본군과 피어린 전 투를 벌였던 왕덕태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 방송드라마를 창작하기로

하고 2015 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

은 서서히 노랗게 변해간다 . 두만강 은 천리 넘는 물길을 아쉬운 듯 오불 꼬불 타래치면서 시원한 파도로, 독 특한 강내음으로 여름의 더위를 식 혀준다.

해란강은 연변의 아름다운 강으로 여름과 가을의 경계인 8월에 그 진가 를 발휘한다. 맑고 투명한 해란강의 물은 수백리 황금 벼파도를 만들어주 는 농부들의 생명수다. 가을이면 해 란강이 에도는 화룡의 60리 평강벌과 룡정의 세전이벌, 곡창지대 벼밭의 황 금파도는 주변의 나무숲들과 어우러 져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8 월의 해란강은 여전히 여름의 따뜻한 해살을 받아 반짝인다.

부르하통하는 연변의 또 다른 명소 이다. 연길시의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 는 부르하통하 량안에 펼쳐지는 밤 풍 경은 한폭의 그림이다. 8월의 부르 하통하를 걸으면 물오리와 물고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강물 은 여전히 시원하고 이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한다. 8월의 부르하통하는 가을 이 맞이하는 마지막 여름이다.

모아산은 연변의 사계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산이다. 봄과 여름에 는 짙푸른 숲과 시원한 바람이 사람 들을 맞이하고 8월이 되면서부터 그 푸르름 속에 가을의 기운이 스며들 기 시작한다. 모아산의 산책길을 따 라 걷다 보면 아직은 여름의 뜨거움 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나 무잎의 색갈에서 가을의 도래를 느 낄수있다.

8월의 무더움은 만불을 익혀주고 그래서 자연은 더 풍성해진다. 들판의 곡물이 점점 익어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풍년의 희망이 넘쳐흐르는 8월 의 삼복은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하는 계 절이기도 하다. 신록이 짙게 독을 쓰 는 산림 속에서 잎과 가지를 겨끔내기 로 자랑하면서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 들이 키 크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이름 모를 여 러가지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화려 한 색갈을 뽐내는 모아산은 숲의 성장 지 속의 힘의 경연장이다.

삼복 기간이 무덥지 않으면 가을에 쭉정이만 남는다고 한다. 8월은 푸 른 전야와 삼림이 무르익어가고 인간 도 익어가는 시기이다. 8월은 성숙한 숙녀의 모습이요, 꽃이 열매로 익어 땅과 키스하는 시기이다.

연변의 8월은 가을을 준비하는 시 기이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장백산 천지, 두만강, 해란강, 부르하통하, 모아산은 또 다른 아름다운 자태를 각 기 다른 패션으로 뽐낼 것이다.

연변의 8월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새로 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람 은 늙어가지만 담수에서 태여난 해 양성 물고기들은 바다로 헤염쳐갈 준 비를 하고 이곳에서 태여난 제비들도 강남에 날아갈 비행련습을 하는 8월 이다.

[시]

■전병칠 (연길)

그대는 아는가 (외2수)

그대는 아는가 새노랗게 살이 올라 하늘하늘 춤을 추는 들국화 활활 타오르던 누구의 청춘인 줄을

꽃 하나하나에 앉아있는 살아숨쉬는 선렬의 이름 꽃무리 하나하나에서 수런거리는 항쟁의 이야기

고운 얼굴 짙은 색채 슬픔인가 희열인가 높이 열린 하늘 향해 방글방글 태양을 굽는 저 향기

꽃이라 하기에는 별처럼 너무 많은 사연 그대는 아는가 들국화가 9월에 피는 리유를

죽어 한몸 백룡이 된 사람

- 왕청현 대흥구진 성룡대교 앞에서

죽어서 눈 감지 못한 한 사나이 위해 이곳 사람들 여기에 다리 하나 세웠네

열혈의 청춘을 밀영에 바쳐 총칼을 뽑아들고 유격전 벌리며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신출귀몰의 항일장령 량성룡

달 없는 깊은 밤이라도 바지가랭이 적시지 말고 쉽게 하서촌 옛 집터를 찾아오라고 다리 우에 환하게 전등불까지 켜놓았네

죽어 한몸 백룡이 된 사람 이승과 저승을 이어놓으며 일년 사계절 주절주절 이 땅의 어제와 오늘을 세상에 알리네

죽어서 눈 감지 못한 한 사나이 위해 이곳 사람들 여기에 다리 하나 세웠네

약수동 밤하늘엔 류달리 별이 많다

약수동 홍색유람기지들을 찾아서

무심히 밟을 땅이 아니다 선렬들의 가슴에서 흐른 피 발길 아래 흙 속에 슴배여있을지도 모른다

나무 하나하나에 풀포기 하나하나에 쓰러질 줄 모르는 생명이 눈을 뜨고 앉아있는 것일가

동구밖 흙길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호호탕탕하게 렬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중국 동북 최초의 인민정권 약수동 쏘베트정부 설립의 우렁찬 함성소리 쩌렁쩌렁

일본령사분관 습격하자 장인강반에 메아리치던 농민적위대 대원들의 발구름소리 발구름소리

동방의 해돋이를 향해 이곳 사람들 항쟁의 불길 지펴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 질펀한 서사시를 엮었다

신춘, 김순희, 정태경… 살아숨쉬는 불사조 영령들 하나둘 하늘에 올라 별이 되였을가 약수동의 밤하늘은 류달리 별이 많았다



「창작담]

《항일장령 왕덕태》를 창작하던 나날

했으며 2017 년부터 현지답사 길에 올랐다. 왕덕태의 자료는 인터넷과 동북항 일련군의 업적을 다룬 서적들에서 수 집하다가 2017년에 인터넷을 통해 주굉계 (朱宏启) 가 쓴《왕덕태전》 을 구매했다. 이 책은 왕덕태의 출생 으로부터 어린시절, 단동에 가서 장 사를 하다가 연변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 진보적 사상을 접수하고 혁명의 길에 들어선 그의 일대기를 상세히

왕덕태의 고향을 찾은 것은 2021년 9월이였다. 그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 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신문출판 총국에서 각 소수민족의 100개 촌을 영상 프로로 제작하는 공정을 시작했 다. 필자가 그 항목의 문자편집으로 선임되여 중국 조선족 산재지역 마을 을 취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차례

기술했다.

왕덕태의 고향은 료녕성 대석교시 (영구시 소속) 박락포진 첨가툰인 데 대석교시에 조선족 마을인 수원 진 신광조선족촌이 있었다. 그때는

이미 방송드라마로 각색된 〈왕덕태 장군〉(2021년 5월부터 방송, 매회 20 분 길이로 총 55 회) 이 연변인민 방송국 전파를 타고 방송되던 시기 였다. 신광촌은 비록 왕덕태의 고향 은 아니였지만 다 같은 대석교시인 지라 길거리의 모습과 래왕하는 사 람들을 보면 왕덕태의 형상이 떠올 라 왕덕태와 지척에서 만난 듯 친절 감이 들었다.

왕덕태가 처음 고향을 멀리 떠나 장 사를 해보려고 도착한 곳은 안동, 바 로 지금의 단동시였다. 1926년 봄이 였으니 왕덕태 (1907년생) 가 19살 때의 일이다. 대도시에 처음 온 데다 사회경험도 없고 장사미립까지 없었 으니 실패는 이미 예상된 일이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왕덕태는 자기보다 두살 이상인 조선족 허성호를 만났다. 둘은 장사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해보 았으나 번마다 실패하고 밑천을 다 날 린다.

필자는 2018년과 2021년에 중국 우쳤고 혁명가의 길을 걷기시작했다.

조선족 전통문화 제작, 중국 조선족 산재지역 농촌 취재 기회에 단동시를 다녀왔다. 왕덕태가 단동에서 장사 를 했던 장면을 형상화하기 위해 단 동의 아침시장을 여러번 다녀오면서 장사 품목은 물론 장사군들의 얼굴과 싸구려 소리까지 관찰하면서 구상을 무르익혔다.

단동에서 장사를 접은 왕덕태와 허 성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심했 다. 하지만 왕덕태는 단동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마련해준 장사 밑천을 다 날렸는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아 허성호를 따라 그의 고향인 안도현 차조구에 도착했다.

차조구는 지척에 있다. 안도로 갈 때 면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를 리용 했다. 석문진에 내려 길거리, 살림집 과 주변의 경관을 상세히 관찰하군 했 다. 바로 석문진 차조촌에서 왕덕태는 농민협회, 청년동맹, 반제동맹 등 진 보적 조직에 가입하여 혁명도리를 깨

차조구에서 지주놈을 혼쌀낸 왕덕 태는 그곳을 떠나 금불사, 지금의 로 두구진 금불촌에 갔다. 금불촌 남쪽에 는 로두구, 동불사 일대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독교봉이 있다. 등산팀과 함께 독교봉에 등산을 가면 마을에 들 어가 살림집들을 관찰했다.

금불사를 떠난 후 왕덕태가 발을 붙 인 곳은 로두구였다. 로두구에서 왕 덕태는 진정한 혁명가의 길을 걷기 시 작했고 추수춘황투쟁의 앞장에 섰으 며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했 고 후날 연길현유격대로 발전한 로두 구유격대에 가입했다.

왕덕태의 그 다음 행보는 삼도만과 팔도로 이어진다. 삼도만은 2018년 부터 시작하여 다섯번 정도 다녀왔다. 팔도는 삼도만으로 가는 길옆에 있기 에 1년에도 5차 이상은 다녀온다. 삼 도만에서 왕덕태는 토비무리에 들어 가 병운 (兵运) 사업을 했고 팔도 등 지에서 토비들의 신임을 얻을수 있는 장거를 이루어냈다. 나중에 왕덕태는

병운에 성공하여 32명을 토비무리에 서 기의시켜 연길현유격대 (후날 동북 인민혁명군 제 2 군 제 1 퇀) 에 가입 시켰다.

₩ 남철(연길)

왕덕태의 대부분 항일 업적은 연변 에서 이룩한 것이다. 그중 왕우구항일 유격근거지는 바로 지금의 연길시 의 란진 구룡촌과 련화촌, 고성촌 일대인 데 일본군과 가렬처절하게 싸웠던 전 장이다.

2017 년부터 나는 연변의 항일투 쟁사와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 인들과 함께 전적지를 많이 답사했 는데 그중 왕덕태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한 차수가 가장 많다. 왕우구항 일유격근거지에서 일제와 싸웠던 형 상을 구상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인 연길시 의 란진 고성촌을 답사한 후 그 이듬해 부터 해마다 고성촌을 다녀왔다. 특 히 이곳에서는 수차례의 유격전이 있었기에 고성촌 입구로부터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바위 하나, 나

무 한그루까지 세심히 관찰했고 폰 에다 메모했다. 그런 관찰이 후날 극 본을 창작할 때 크게 일조했다. 왕덕 태는 바로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인 의란진 고성촌에서 조선족 처녀와 결혼했다.

일본군의 드센 '포위토벌'에서 항일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 왕덕태는 동북 항일련군 제 2 군을 이끌고 처창즈, 대 전자 (지금의 안도현 만보진), 내두산 으로 전이했다.

2019 년부터 나는 답사팀과 함께 이 지역을 답사했는데 내두산촌은 선후 로 8차나 다녀왔다. 그중 1935년 5 월에 일본군 국제렬차를 습격했던 안 도현과 돈화시의 경계인 하발령만 해 도 5차 답사했다. 내두산에 이어 왕 덕태의 발자취는 돈화의 따푸차이허, 한총령과 멀리 북만-흑룡강성 녕안 의 경박호지대에까지 뻗어간다. 이 지 방들도 2019 년부터 2021 년 사이에 5 차 이상 답사했고 2021 년 9월에는 왕 덕태의 묘지가 있는 백산시를 답사하 였다.

40 만자 분량의 방송드라마 〈왕덕 태장군〉과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간 된 애국주의교양도서 《항일장령 왕 덕태》는 자료 수집과 현장답사로 6년 의 시간을 들여 창작한 항일렬사전기 라고 할 수 있다.